



수신	각 언론사 과학, 노동, 사회부 담당 기자 등
발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최연택]
연락처	담당: 오수환 교육국장(010-6437-1032)
배포일시	2024년 11월 6일 10시
제목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사과하고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라!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사과하고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라!

지난 9월 20일 2024년 임금협약 3차 실무교섭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사측은 “원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직급보조비 신설 등 올해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9월 3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9월 26일(수)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현재까지 임금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합의 이후, 한 달 반이 지났다. 협약이 체결되었더라면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승분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노사 합의 이후 있었던 지난 9월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이후,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던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였다. 갑자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할 뿐 해결 의지마저 사라진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오원근 원장의 태도와 임금협약 체결의 중단은 결국 충북도의 입김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 실무교섭위원들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충북도를 설득하는 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충북도와 접점을 찾고 해결의 돌파구도 만들었다. 남은 것은 원장이 나서 직접 해결에 나서는 일이었다.

우리 노조는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면담에서 사측 대표인 원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과 11월 4일까지 사용자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고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사가 단체협약에 임할 때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해야 하며 합의한 결과 또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내용의 교섭원칙을 합의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원장은 현재까지도 문제해결을 위한 아무런 역할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손으로 합의한 교섭원칙과 노사대표 면담에서 약속한 것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충북테크노파크 구성원과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충북테크노파크 임금협약 체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달 반가량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오원근 원장에게 있다. 노사가 합의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거슬렀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원근 원장에게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또한 충북도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따라 충북도는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충북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출연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가 아니라 옥상옥으로 지시하고 간섭하는 지자체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충북테크노파크 임금협약을 방해한 행동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장은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충북테크노파크 구성원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하나, 충북도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임금관련 노정교섭에 적극 나서라!

하나, 충북테크노파크 사용자는 임금협약 즉각 체결하고 합의안을 신속히 이행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13개 테크노파크 본부 소속 지부들을 포함, 8천여 명의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합원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1월 6일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